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난 2일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 호국대전 완공 기념 대축제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대흥사 호국대전은 대흥사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의승과 순국선열 및 이름없는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나건호 기자

‘대흥사 호국대전’ 호국불교 정신 계승 성지로

**완공 기념 문화대축제 성료
표창사 추계제향·문화공연
세미나·서산대사 유물 전시
“나라 사랑 일깨우는 자리로”**

해남 대흥사에서 호국대전 완공을 기념하는 문화대축제가 2~3일 이틀동안 성황리에 열렸다.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대흥사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불교 신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흥사의 역사적 의미와 호국 정신을 함께 기렸다.

대흥사는 서산대사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호국불교 전통을 가진 사찰로, 특히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축제는 대흥사 호국대전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의승(護國義僧)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행사는 2일 오전 10시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표창사 추계제향으로 시작했다. 서산대사의 위패가 모셔진 표창사에서 전통 제례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묵념하며 서산대사의 호국 정신과 업적을 되새겼다.

이어 호국문화 공연이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쳐졌다. 불교적 미학과 호국정신을 담은 국악 공연과 범고 연주가 울려 퍼져 관람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호국불교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는 이틀간 ‘16~17세기 동아시아 전쟁과 불교’, ‘호국불교 전통의 새로운 이해’ 등의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조선시대 호국 승려들의 활약상과 한국 불교의 호국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2일 열린 1부 세미나에서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16~17세기 조선의 전란 극복과 의승의 공적’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선시대 불교의 호국 역할을 설명했다. 리시롱 중국 북경대 교수는 ‘금광명경과 동아시아 불교의 호국 사상’을 발표해 동아시아 불교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일본 중앙대 키무라 타쿠 교수는 ‘임진전쟁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불교 승려들이 보여준 호국 활동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와 논점을 소개했다. 향문스님(대흥사)은 ‘대흥사의 호국 전통과 표창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3일 이어진 2부 세미나는 ‘호국불교 전통의 새로운 이해’를 주제로 트리하이타오 중국산둥대 교수가 ‘중국 불교 호국 사상과 국가 민족 관념’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조선 불교의 호국 이념과 활동’ △사토 아즈시 일본 도요대 교수가 ‘임

진전쟁 종군승 연구 현황과 과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호국불교의 새얼굴, 호국대전의 미래를 위한 제안’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3부는 ‘호남불교와 전란의 극복’ 주제로 △황인규 동국대 교수 ‘호남 의승의 불교계 수호’ △김성순 전남대 교수 ‘양남과 호남의 호국불교 유적지’ △이중수 순천대 교수 정유재란과 호남불교 △신선혜 호남대 교수 ‘임진왜란과 호남 사찰의 존재 양상’이 발표됐다.

호국대전 특별 전시도 열려 서산대사가 직접 사용한 금관가사와 옥발우, 조선 선조와 정조가 서산대사에게 하사한 교지 등 다양한 유물이 공개됐다.

광주에서 왔다는 김이수(37)씨는 “평소 불교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대흥사는 매달 한번씩 올 정도로 좋아하는 곳이다”며 “이곳은 사계절 풍경이 다 다르다. 불교를 잘 몰라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올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흥사의 역사와 호국정신을 알기에도 좋아 오게됐다”고 말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불교 의식을 넘어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대흥사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흥사는 호국불교의 성지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고자 승병을 일으켰던 서산대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이 깃든 곳이다”며 “대흥사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호국의승을 추모하기 위해 7년간의 긴 공사 끝에 드디어 호국대전이 완공됐다. 거듭 봉축하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9월 호우 피해복구비’ 국비 50억 확보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가 확보

해남군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국비 50억2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9월29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과 군 공무원들이 피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남군 총 피해액은 49억3200만원으로 이에대한 복구비로 86억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남군은 계곡면과 황산면, 산이면, 화원면 등 4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국비 4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해남군은 재난관련 부서와 읍면직원들의 세심한 피해조사와 함께 명현관 군수와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국회의원, 해남군의회 이성욱 의장 등이 한

목소리로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며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됐다.

군은 이번엔 확보한 국비 50억2900만원과 함께 도비 13억5200만원, 군비 22억4700만원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복구비 86억2800만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면을 포함해 해남군 전역의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명현관 군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결과 국비 추가확보의 성과를 거둔 만큼 피해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건어물·김치·고구마... 해남 농수축산물, 국회서 완판

우원식 의장·의원 등 36명 참여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해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 국회의원과 과제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김장철을 앞둔 시기를 맞아 우리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온 국민의 의지를 모으고자 하는 해남군의 요청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 나서 의미있는 자리가 성사되었다.

해남의 건어물, 김치, 장류, 고구마, 참기름 등을 판매한 직거래장터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대부분 품목이 완판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민주

당 원내대표 민형배, 민병덕 의원 등 36명의 국회의원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최근 배추값 상승에 해남군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김장 늦추기 캠페인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1월 중순부터 속이 짝한 해남배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배추가격이 하락한다”며 “서울 소비자들께서도 2주만 늦춰 11월20일 이후 김장을 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김장을 할수 있다”며 김장 늦추기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지원 국회의원도 “해남배추는 전 국민에게 큰 희망”이라며 “김장 2주만 늦추면 전 국민의 배추 고민이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2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김치축제에서도 해남 김치가 완판되는 등 해남배추의 인기는 상승가를 올리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3일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해남미남축제에서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김치비빔 체험행사와 해남김치 판매, 절임배추 예약 등으로 이 같은 열기를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로 배추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현지의 재배 현황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며 “소비자들께서도 물가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김치의 날인 11월22일 전후에 김장을 한다면 맛있는 김장을 부담없이 할수 있으므로 김장을 조금만 늦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